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49

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

(사무엘상 5:1~7:2)

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블레셋!

**“헤헤헤! 이스라엘의 신이 대단하다더니
헛소문이었나? 별거 아니던데 말이야! 헤헤헤!”**

**“아니지 아니지. 저들의 신도 대단하지만
우리의 다곤 신께서 백배, 천배
더 위대하다는 뜻 아니겠는가? 헤헤헤.”**

**‘다곤’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.
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
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.**

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배배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 우상 곁에 두었어요.

다음 날 아침

**“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
누가 우리 다곤 신을 넘어뜨려 놓은 거야?”**

**정말이었어요. 밤사이 거대한 다곤 우상이
앞으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
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어요.**

**“아이고 우리 다곤 신께서 땅에 코를
박고 계시다니...!
그 팔생긴 코 다 망가지겠네!
간밤에 지진이라도 났었나?”**

**정말 이상한 일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
그러려니 하고 다시 다곤 우상을 세워 두었어요.**

그리고 다음 날 아침

“으, 으...! 이게 무슨 일이야!”

다곤 신전에서 또 한 번 소란이 생겼어요!

이번에도 다곤 우상이 언약궤를 향해
쓰러져 있었는데, 이번에는 머리와 손까지
부러져서 몸통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.

그뿐만 아니었어요.
그 때부터 신전 주변 도시에 피부병이 돌더니
사람들 몸에 종기가 생기고
아픈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.
그제서야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.

“이스라엘의 신성한 물건이 우리 도시에
온 뒤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저 요상한 상자를 여기 말고, ‘가드’ 지역으로 보냅시다.”

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‘가드’ 지역으로
 옮겨졌어요.

하지만 지역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.
 ‘가드’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젊은 사람, 나이 든 사람
 가리지 않고 피부병이 돌아왔어요!

도시 곳곳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
 없을 정도였죠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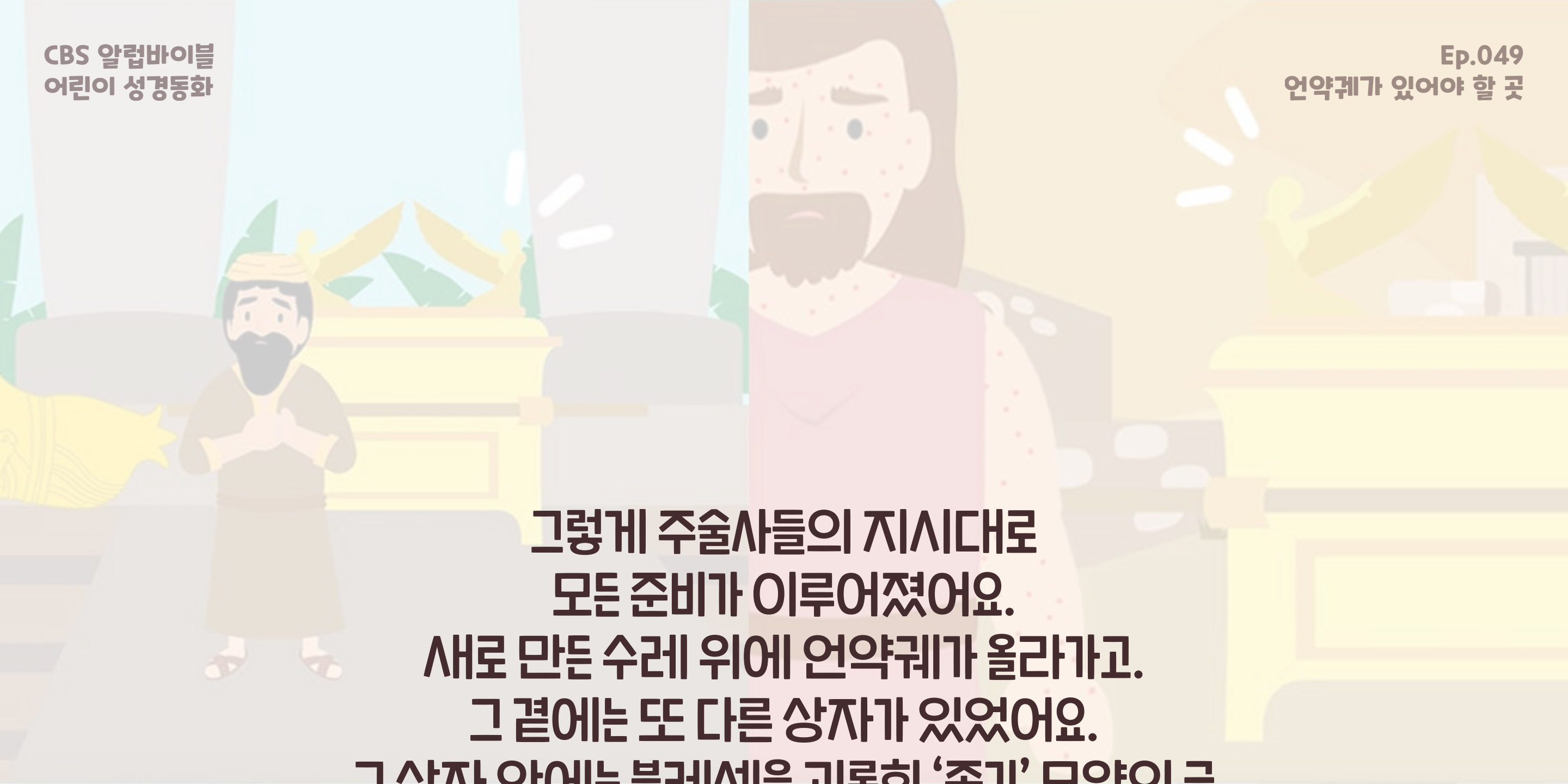
결국 ‘가드’ 사람들은 언약궤를 ‘에그론’ 지역으로
보내버렸어요.

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고
언약궤가 도착하기도 전에
에글론에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 있었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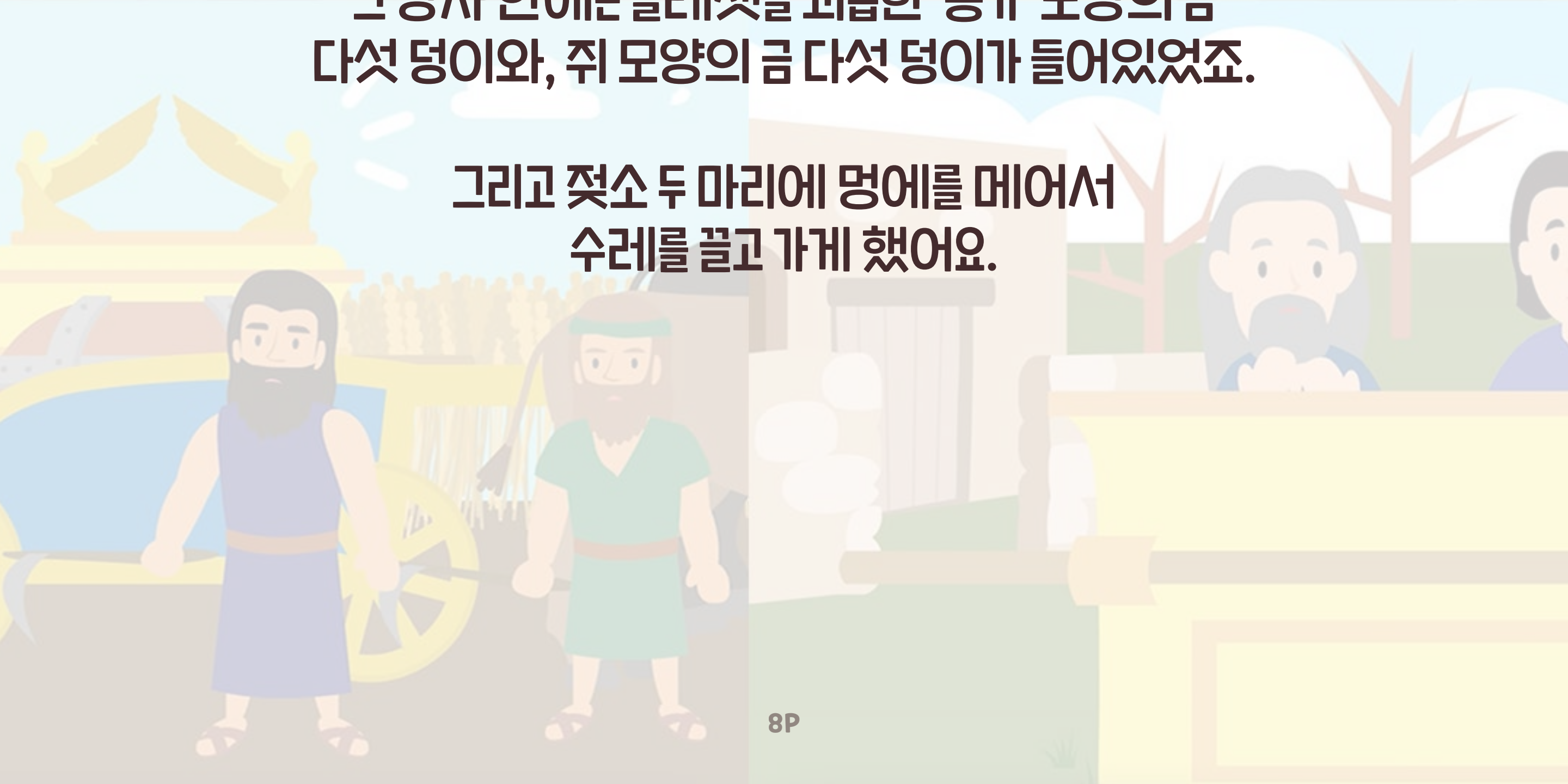
**“이스라엘 신의 상자를 여기로 가져오다니!
우리 모두를 죽일 작정입니까?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!
그 불길한 물건을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
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!”**

**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
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어요!
이름난 주술사들을 불러서는
어떻게 돌려보내면 좋을지 물어보았죠.**


**“흠.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.
그냥 덩그러니 저 궤짝만 보냈다가는
이스라엘의 신이 노여움을 풀지 않을 겁니다.
여러분의 그 끔찍한 질병이 낫기 위해서는
가만있자... 어찌하면 좋을까..
오, 옳거니! 금으로 만든 제물을 함께
떨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!”**





그렇게 주술사들의 지시대로
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어요.
새로 만든 수레 위에 언약궤가 올라가고.
그 곁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었어요.
그 상자 안에는 블레셋을 괴롭힌 ‘종기’ 모양의 금
다섯 덩이와, 쥐 모양의 금 다섯 덩이가 들어있었죠.



그리고 젃소 두 마리에 멍에를 메어서
수레를 끌고 가게 했어요.



**“자,자 다 되었군요. 우리에게 벌을 내린 분이
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
이 찢소들은 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겁니다.
자! 출발하거라! 이랴, 이랴!”**



**그러자 놀랍게도 찢소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
뚜벅뚜벅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
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었지만 찢소들은
다른 길로 새지도 않고 풀을 뜯기 위해 멈추지도 않고
옳바른 길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갔죠.**

그때, 이스라엘 ‘벰세메스’ 땅에서는
한창 농부들이 밀을 베고 있었어요.

“응? 처음보는 소들인데?
저기 뉘 집 소인지 아는 분 계시요?”

처음 보는 소들이 새 수레에 커다란 상자를
싣고 오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.
하지만 이내 궁금증이 풀렸죠.

벰세메스에는, 예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을
관리해오던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.

**“오, 세상에 이럴 수가. 여러분!
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!
하나님의 언약궤가 틀림이 없습니다!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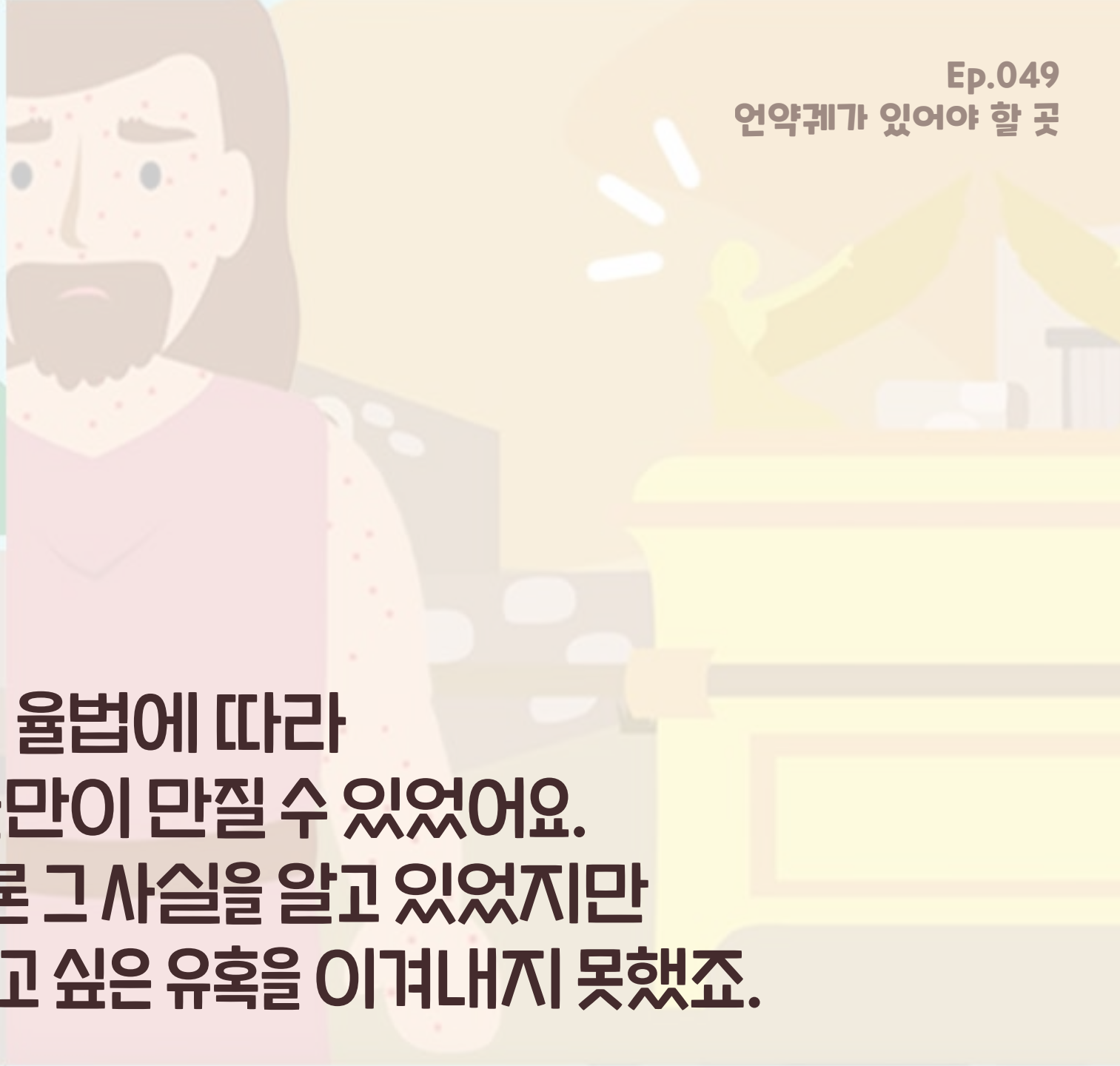

**“이게 말로만 들던 언약궤라구요?
영영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! 하나님 감사합니다!”**

**벤세메스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크게 기뻐하며
하나님을 찬양했어요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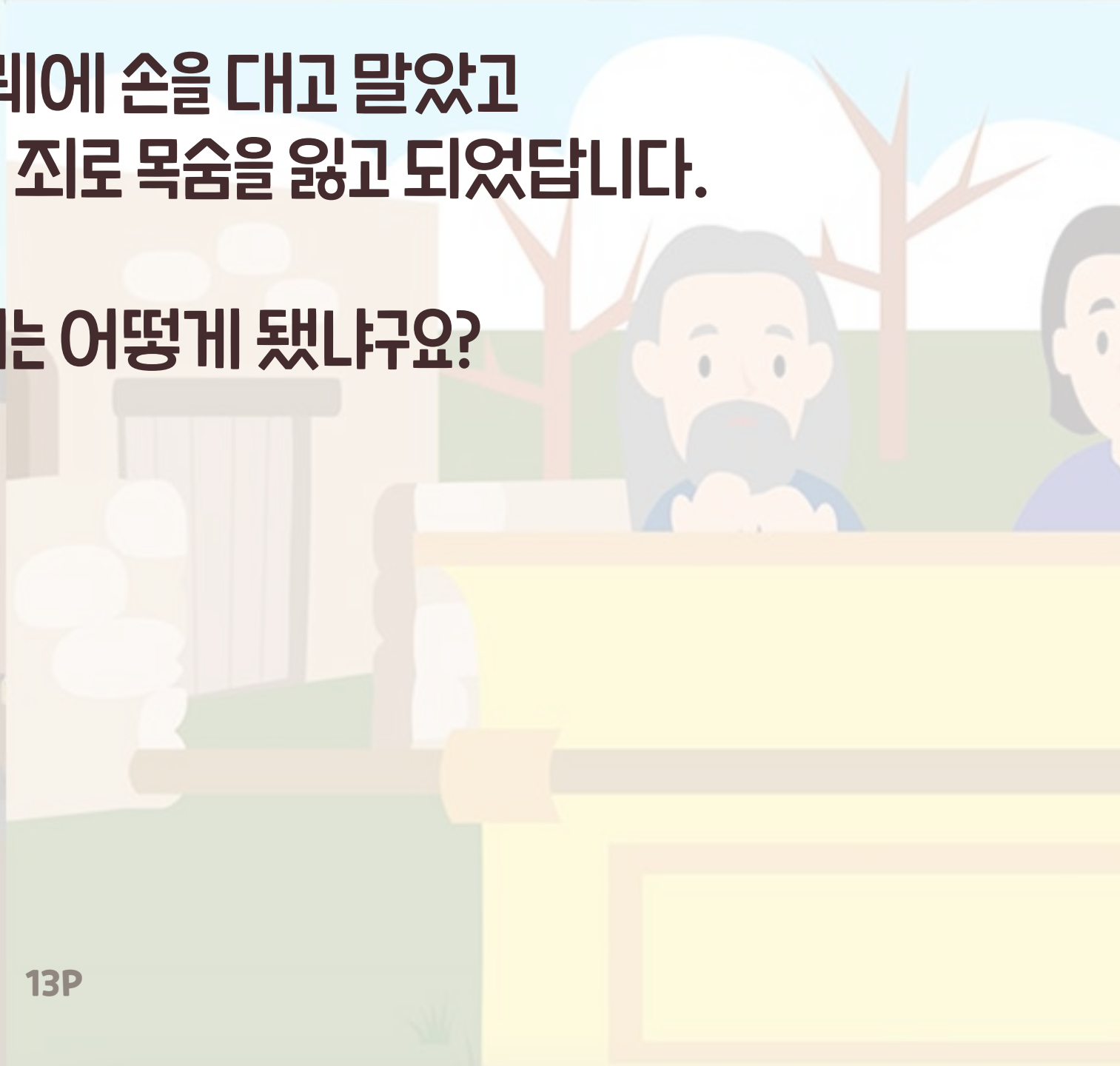

**그런데 기쁨도 잠시!
몇몇 벤세메스 사람들은 이런 말을
하기 시작했어요!**

**“아니 그런데 언약궤 안을 확인해봐야하지 않겠어?
포악한 블레셋 녀석들이
하나님의 돌판 십계명을 훔쳐갔을 수도 있잖아요?”**

**“아니면 반대로, 블레셋에서
금덩어리들을 더 넣어줬을지도 몰라요!
그러니까, 한 번 열어보는 게 좋겠어요!”**





하나님의 율법에 따라
언약궤는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었어요.
벤세메스 사람들도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
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죠.






결국 그들은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말았고
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로 목숨을 잃고 되었답니다.

그래서 언약궤는 어떻게 됐냐구요?



**두려워진 마을 사람들은 레위 사람 ‘아비나답’의 집에
언약궤를 보냈어요.
그리고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.**

여러분, 언약궤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?



**언약궤는 애초에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할
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어요.**

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석은 생각 때문에
언약궤는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었고
이후로 여기저기 옮겨지며 끔찍한 물건 취급을 받았죠.

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
그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
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는 죄를 저질렀어요.

그리고 언약궤가 제자리, 하나님의 성막으로
돌아가기까지는 그 뒤로도 20년이나 되는
시간이 필요했습니다!